

엔高 波及의 결과 속

溫 基 云

〈産業研究院 研究委員·商博〉

1. 머리말

1973년 2월 변동환율제 이행時 日本 엔貨는 달러당 301엔에서 270엔으로 11% 평가절상된 바 있으나 이후 1978년과 1985년 두차례의 급격한 엔高期를 거쳤고 1993년 들어 또다시 네번째의 급격한 엔高期를 맞이하고 있다.

1978년의 엔고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달러당 300엔대(1976년 초반)에서 176엔(1978년 10월)까지 약 42% 평가절상된 것이었다.

1985년 9월에는 G7 재무장관들의 플라자合意를 통해 주요국들이 달러貨의 과대평가를 시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엔화가 급속히 평가절상되기 시작하여 1987년 12월말 현재 달러당 123.5엔으로 플라자합의 이전에 비해 무려 100% 이상에 달하는 절상을 기록했다. 이후 엔화는 조정국면에 들어 1992년 5월에 이르기까지 달러당 130~140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협조개입에 의한 엔고 유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급기야 1992년 G7 회담에서는 선진국수뇌들이 또다시 엔고를 지지하기로 합의했고 同年 8월에 발표된 10조7,000억엔의 綜合經濟對策, 유럽外換市場不安에 따른 안정통화에 대한 수요증대 등의 요인이 겹쳐 엔貨는 1992년 중반 이후 다시 강세추이로 돌아섰고 엔고 진행속도는 1993년 2월들어 가속화되어 왔다. 특히 4월의 13조

2,000억엔에 달하는 사상최대규모의 종합경제대책 발표와 美日頂上會談에서의 클린턴대통령의 엔高 용인발언 파문 등으로 엔貨 환율은 절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6월 중순 현재 달러당 106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엔화급등은 중장기적으로 예견된 엔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일본의 거대한 경상수지흑자가 좀처럼 시정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엔고는 앞으로도 더욱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엔고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출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한 수출입이 변함으로써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수출의 경우를 보면 세계 각 시장에서 일본산품과 경쟁하는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수출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대일수입의존도가 높고 더구나 대일수입구성상품이 자본재, 중간재 등 단기적으로 국산화대체나 제3국으로의 수입선전환이 어려운 상품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엔고가 대일수입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다만 엔고의 수출증대효과는 일본산품과 우리 상품이 경쟁하는 세계 각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면 수입증대효과는 대일수입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리의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엔고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엔고에 의한 수출증대효과가 수입증가효과를 어느 정도 능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수출입변화는 당연히 우리 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출이 신장되는 산업은 생산증가와 영업실적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일본의 부품·원자재 등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은 수입부담가중으로 생산감소나 영업실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밖에 엔고는 우리의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그 효과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있다고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엔고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와 물가 등 기타효과를 살펴본 다음 우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엔고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엔高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1) 수출에 미치는 효과

KOTRA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엔고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 수출에는 31억 달러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철강(냉연강관, 아연도강관, 강관), 전자·전기, 섬유류(니트제품, 면사, 면직물), 화학(HDPE, PP) 등의 대일수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일본산대비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국 수출에서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특히 동남아, 미국, 중동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즉 이들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일본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원자재의 대일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造船의 경우에도 엔고 수혜를 최대한 누려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주요 품목별로 최근의 수출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1) 철 강

최근 아연철강관, 강관 등을 제외한 거의 전품목의 수출이 활발하며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대만, 홍콩, 태국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수출호조는 엔고뿐 아니라 중국, 인도의 경제개발 등 特需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대일수출의 경우 엔고로 일본시장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의 수요부진으로 미증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용력이 어느 정도 구축된 동남아, 남미 등 제3국에서의 가격경쟁력개선을 통한 수출증대가 다소 기대되고 있다.

(2) 전자·전기

최근 전자산업은 미국·EC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산업용 전자기기의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가전제품도 고급·대형제품의 개발과 수출시장다변화로 국내의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등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미국의 컴퓨터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급증과 가격상승으로 4M DRAM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6M DRAM의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가전부문은 업계의 고급·대형제품의 개발과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북미, EC뿐 아니라 재고가 소진하고 있는 동구권 지역으로까지 점차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자는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와 위성방송수신기, 무선전화기 등 통신기기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 본체는 경쟁력 상실과 가격하락 기대에 따른 구매지연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며 HDD, FDD 등 컴퓨터 보조기억장치는 시장개방에 따른 내수시장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섬유

섬유공업은 폴리에스터직물의 中國特需 등에 힘입어 직물류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의류의 수출감소세 지속으로 제품류의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엔고에도 불구하고 섬유류의 수출증가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국내 綿紡業界는 국제경쟁력약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면직물 수요감소 등에 따른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차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파키스탄 등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카드사, 코마사 등 정변품의 경우 경쟁력회복이 어려워지자 제품의 용도 차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4) 석유화학

엔고로 인해 합성수지와 합성원료의 생산 및 수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엔고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둔화되는 반면 국내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금년 1/4분기중에는 16,360천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다만 인도가 관세체계를 종량·종가혼합체계에서 종가제로 단일화함에 따라 PP의 경우 최고 136%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PP에 대한 관세율을 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5) 조 선

엔고로 인해 해외수주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환됨에 따라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의 新造船受注는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및 업계의 수주활동강화에 힘입어 1,794천G/T로 전년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초고속여객선 및 LNG船 개발에 이어 초고속화물선, 초고속카페리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주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조선국으로부터 LNG선에 대한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造船보조금 철폐와 관련하여 OECD는 다자간협상이 금년중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외국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의 미국내 입항제재 및 보조금 지급 국가에 대한 일정기간의 특별관리규정을 마련중에 있어 국내업계는 생산성향상, 인력기능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등 자체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 수입에 미치는 효과

엔고는 수입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우리의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992년중 한국의 對日輸入은 194.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총수입액의 24%에 이른 것이다.

대일수입상품의 구성비를 보면 기계류·운반기계, 전기·전자 등의 자본재가 113.3억 달러로 58.2%, 화학제품, 철강재 등의 공업용원료가 67.7억 달러로 34.8%를 차지하여 자본재·원자재의 수입비중이 90%를 넘고 있다.

자본재·원자재는 수입선의 전환이 쉽지 않고 가격탄력성도 높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엔고의 상당부분이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국내에 전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엔고로 인해 한국의 대일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일수입의 결제통화가 엔이나 달러냐 그리고 달러인 경우 일본측이 엔고에 반응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시키느냐 즉 가격전가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제통화가 엔화인 경우 한국의 수입업자가 받는 부담은 엔고분의 100%가 된다. 즉 일본 수출업자가 수출에 따른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달러 표시가 아니고 自國通貨인 엔으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 한국의 수입업자는 엔화가 원화에 대하여 가치상승한 분만큼 추가적인 수입부담을 안게 된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일수입에 있어 엔화표시 수입비중이 늘고 있어 기계류, 부품 등 수입업계가 큰 부담을 안게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한국의 대일수입중 엔화 결제규모는 1992년의 경우 92억8,000만 달러로 전체의 54.6%를 차지, 1991년의 49.4%에 비해 5.2% 포인트 상승했다.

다음에 달러결제 수입의 경우 일본이 엔고에 반응하여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정도 즉 가격전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엔고로 인한 한국의 대일 수입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일본의 순지역, 소상품을 고려한 평균적인 가격전가율은 56%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가격전가를 하는 품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대일수입중 자본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타 효과

엔고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이외에도 물가나 금융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엔고는 자본재·중간재 등의 대일수입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물가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물가억제를 위해 원화강세 정책을 펴 온 것이 사실이다.

금년 4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이미 3.3%나 올라 있는 상황에서 엔고가 지속된다는 것은 물가에 적신호라 할 것이다. 국제원자재가격마저 소폭이나마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물가에 대한 부정적 파급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엔화와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동시에 오름에 따라 물가상승의 2중부담을 안고 있어 물가관리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엔고는 국내주식시장 등 금융부문에 호재로 작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東西經濟研究所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엔고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엔고시 가격경쟁력개선효과가 큰 운수장비, 전기·전자, 철강금속 및 비철금속이 단기간에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 엔고에 대한 각국의 반응

대만은 수출증대효과보다는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대일적자폭의 확대 및 수입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내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산업기술의 지나친 대일의존도, 대만 소비자의 일본제품에 대한 강한 선호도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만업체들은 이번 엔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계류의 경우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부품의 수입선을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컴퓨터 부품의 경우 IC 등 정밀도가 낮은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한국 등으로 수입선 전환을 검토함과 동시에 일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홍콩은 엔고가 일본의 수출경쟁력약화를 유도하여 일본국내 경기를 전반적으로 퇴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중저가품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대일 수출증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품목별로는 모피의류, 가죽제품, 신발류, 가구류의 경우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상승으로 오히려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원구류, 보석제품류는 엔화가 100엔까지 절상될 경우 5~20%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엔고가 장기적으로 대일수입감소 및 수출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나 단기적으로는 특히 첨단기술부품 등에서 대일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입 공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태국은 엔고로 인한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이 서로 상쇄되어 태국 전체의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제품의 가격상승에 따라 태국산 섬유, 신발, 의류, 수산물, 기타 경공업제품 등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 및 부품, 전자제품 및 부품, 화학제품 등 호재이면에 원재료 및 부품의 수입가상승에 따른 수출가격상승이라는 악재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맺음말

엔고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엔고로 인한 수입부담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특히 대일수입의 경우 엔화결제비율을 낮추고 달러 등 타국통화의 결제비율을 높이도록 일본측과 교섭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이 한국의 대일의존적 수입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전가율을 높이는 것을 능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산개발 등 산업구조고도화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국산화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수입선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환율이외의 수출가격 결정요인인 임금, 금리 등이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 수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